



거대한 역사^{歷史} 품은 역사^{驛舍}

경인선은 인천과 서울 사이 33.2km를 잇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다.
1899년 9월 18일 개통해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다.

인천역은 경인선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이다. 경인선이 개통하면서 문을 열었다.
이 역은 작지만, 거대한 역사^{歷史}를 품은 역사^{驛舍}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인천의 축소판이다.
여기서 시작된 철도가 전국의 공장을 움직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이번 정차역은 이 열차의 종착지인 인천역입니다.”
하지만 끝에서 다시 시작. 경인선 개통 120년 만에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곧 추진된다.
열차가 힘찬 기적 소리를 울리며, 새로이 길을 나선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1960년대 인천역 모습으로, 당시 그 앞으로 부평, 영등포, 서울역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다녔다(사진 제공 유지우).
‘싱크로울 100%’. 당시 지은 투박한 콘크리트 건물과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다.

CONTENTS



- 04 인천 미소
널리 인천을 이롭게 하라 外
- 05 미디어&스토리
눈에 확 띄는 홍보 콘텐츠 전략
- 06 소통 인천
인천의 다리
- 12 인천의 맛
① 강화곶별장어
- 18 가을 라이딩
강화나들길
- 22 가을 산책
인천가족공원
- 26 사람과 공간
⑨ 배다리 주택 ‘오봇’
- 30 당신이 잠든 사이에
성광떡방
- 34 살고 싶은 도시
⑨ 잉글랜드 맨체스터
-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인천’이라는 ‘별’에서 산 ‘행운’
- 40 시민 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신준상 대원
- 42 문화 캘린더
인하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外
- 44 이미지 뉴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 46 시정 뉴스
GTX-B 노선 송도~서울역 27분 만에 주파 外
- 50 의회 뉴스
일본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外
- 52 드로잉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파크
- 54 인포 박스
신박한 생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합시다 外
- 58 인천의 아침
한국 철도 120주년, 시발지 인천
- 59 인천사진관
박채은 독자님 가족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널리 인천을 이롭게 하라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굿모닝인천>을 매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소에서 더 쉽게 <굿모닝인천>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홍보 매체인 만큼 인천 지역 주요 공공 기관·장소 등은 물론이고 타 지역까지 폭넓게 배포해 인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랑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 이노을 연수구 신송로

추억을 닦다, 오늘을 담다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굿모닝인천>은 고마운 선물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게 하고 오늘의 인천을 자세히 알게 하는 폭넓은 정보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직접 가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인천 구석구석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 윤암전 남동구 하촌서로

더 새로워질 월미도 여행

우여곡절 끝에 월미도노레일이 '월미바다열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소식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늘 친근한 월미도의 풍광을 조금은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인천 시민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월미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 역시 꼭 한번 타보겠습니다!

———— 서지현 중구 도원로

제철 음식처럼 싱싱한 정보로 가득하길

발행된 지 20년이 훌쩍 넘는 <굿모닝인천>을 얼마 전에서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아쉬움도 잠시,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에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 뿌듯했습니다. 집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연령대별 육아나 건강, 교육에 대한 정보와 정책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천의 제철 음식과 이를 활용한 레시피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 고태운 미추홀구 제일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눈에 확 띄는 홍보 콘텐츠 전략

글 장훈 시 소통기획담당관

공공 홍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다.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리고, 정책에 참여 시키고자 하지만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다. 콘텐츠의 세상은 넓고, 보고 즐길 것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콘텐츠의 홍수이다. 많은 공공 홍보 콘텐츠가 나왔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와중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실력으로 시선을 잡는 공공 홍보 콘텐츠도 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신문과 방송에서 조명하고 다시 뉴미디어로 재확산된다. 이런 콘텐츠들에는 어떤 성공 요인이 있는 것일까?

우선 '스스로' 만드는 콘텐츠가 성공 확률이 높다. 최근 'B급 포스터'로 화제가 되고 있는 충주시 SNS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청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시청 담당 직원이 나 경찰이 직접 만든 콘텐츠는 투박하지만 신뢰도가 높고, B급이지만 기발하고 신선함이 돋보인다. 스스로 재미있어 만드는 것이기에 진정성까지도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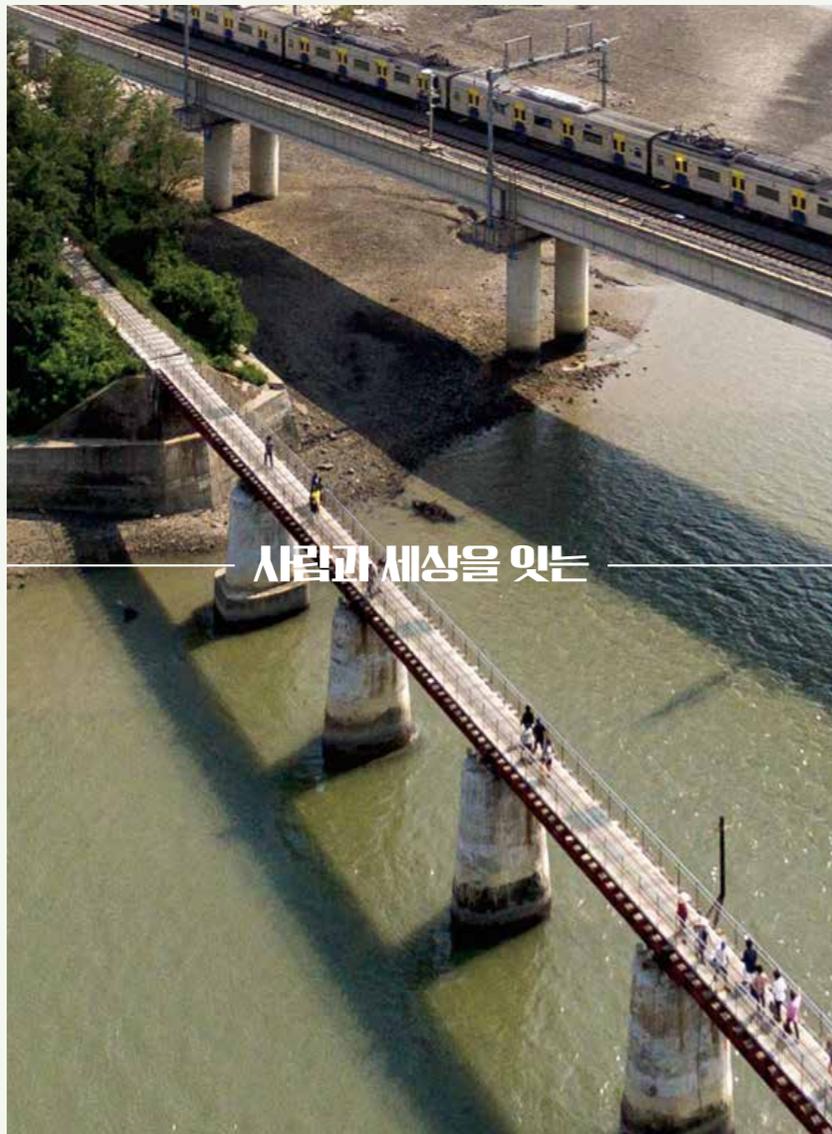
두 번째는 참여형 콘텐츠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 때에도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제작하고, 슬로건과 이벤트에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일 때 살아 숨 쉬는 콘텐츠가 탄생한다. 인천시의 경우,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콘텐츠일수록 더 관심 받고 오래간다.

세 번째는 '콜라보'이다. 인지도가 취약한 콘텐츠를 잘 알려진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캐릭터는 탄생한 지 2년 정도로 아직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코코몽과의 콜라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올리고자 노력했다.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활용하거나 큰 이벤트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콜라보 홍보 방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One source_Multi use 방식도 콜라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 시대의 대세는 결국 공유와 협업이다. **네 번째는 '고퀄' 콘텐츠이다.** B급 콘텐츠 전성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질 높은 콘텐츠가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정성을 다해 성심껏 만든 콘텐츠는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전문가의 입소문을 통해 시작된다. 최근 인천시가 만든 브랜드 홍보 영상이 IBA(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상반된 매력과 공존의 도시라는 인천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공신력 있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제작됐고, 시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좋은 결과에는 치밀한 기획과 전략, 부지런한 실행과 노력이 선행된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다.

공공 홍보의 목적은 보다 유용한 공공 정보를 더 잘 알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다. 성공적인 홍보 콘텐츠는 도시 브랜드 제고는 물론이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눈에 확 띄고 신선한 공공 홍보 콘텐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 본다.



BRIDGE



추억을 넘어 오늘날, 미래를 넘어
 끈질기게 버텨온 인천의 다리들.

다리

사람과 세상을 잇는

길

“다리는 길의 연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다리는 끊어진 길을 연결해 세상과 세상,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인천에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수많은 다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인 ‘인천대교’는 다음 달이면 개통 10주년을 맞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리를 지나는 모든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된다. 바로 이 순간에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류창현

오늘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다리를 건넜다. 아침엔 막힌 다리 위를 진땀 흘리며 달렸고, 오후엔 두 ‘다리’로 ‘다리’ 위를 한가로이 거닐었다. 다리는 목적지가 아닌 하나의 여정이다. 멈추어 서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온 다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일까. 또 언제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을까. 이제야 ‘발견’한 인천의 다리들. 모든 다리가 나름의 역사를 간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하늘에서 본 인천대교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 — 다

다리는 세상과 세상을 잇는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인천에 대한민국의 새 하늘길이 열렸다. 섬의 운명도 바뀌었다. 용유도와 영종도는 한 몸이 됐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활주로가 났다. 다리도 놓였다. 2000년 11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영종대교’가 완공됐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다리였다. 총 길이 4,420m의 대교는 언제나 막힘 없이 시원하다. 경쾌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차창 밖으로 바다가 물결친다. 다리는 광활한 바다에 펼쳐진 매력적인 피사체다. 세계 최초 3차원 형상으로 시공된 주 케이블과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교량이 시선을 잡아챈다.

제2경인고속도로 송도 부근에 이르자 거대한 다리가 자태를 드러낸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인천대교’다. 21.38km의 바다 위 고속도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5분쯤 달렸을까, 시선



1 2
3 4



을 가로막던 가드레일이 사라졌다. 12.3km에 이르는 인천대교의 바다 구간이 시작된 것이다. 차 속도를 조금 줄인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는 기분이다. 이어 238.5m 높이의 주탑이 시야에 들어온다. 여기가 인천대교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다리는 100년 수명을 자랑하는 교각이 든든히 떠받치고, 케이블 208가닥이 얽힌 주탑이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인천대교 개통 10주년이다. 생애 첫 건강검진도 받는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통로로, 앞으로 90년은 거뜰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 — 다**

‘인천대교’에 그 이름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오리지널’이 있다. ‘인천교’다. 1959년 1월 개통해 갯골을 가로질러 미추홀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을 잇던 다리였다. 서울에서 동인천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길로, 교통량이 늘면서 1971년 확장됐다가 갯골이 메워지면서 1998년 사라졌다. 40년간 이 길 위로, 보따리를 바리바리 싼 촌로와 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뒤엉켜 달렸다. 다리 아래에선 마을 사람들이 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갯벌 밭에서 삶의 희망을 일궜다. 인천교는 현재 송림로 인천교 삼거리에서 방축로까지의 구간을 잇는 일반 도로로 바뀌었다.

1. 케이블 208가닥이 얽힌, 238.5m 높이의 인천대교 주탑.
2. 원인재 철교. 세월의 흐름 속에 교각과 철재 상판만 남았다.
3. 지금은 연인과 가족이 손잡고 거니는, 협궤 열차가 다니던 소래 철교.
4. 전동차가 달리는, 소래 철교 옆 수인선 철도.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옛 다리가 있다. ‘소래 철교’다. 1937년 8월 6일, 수인선 협궤 열차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칙칙뽀뽀 흔들흔들 덜컹덜컹... 인생의 철로 위를 달리던 협궤 열차는 1970년대 교통망이 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1973년 7월부터는 수원에서 송도 사이만 운행하다, 1995년 12월 31일 모든 구간이 끊기기에 이른다. 그렇게 우리의 ‘꼬마 기차’는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1995년까지 협궤 열차가 다니던 ‘소래 철교’는 아직 그대로다. 그 옛날 바닷사람과 염전 인부를 실어 나르던 철교 위를 이제 연인과 가족이 손잡고 거닌다. 바로 그 옆에는 최신형 전동차가 쪽쪽 뚫은 선로 위를 내달린다. ‘원인재 철교’는 소래 철교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협궤 철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원인재역에서 승기천을 가로질러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는 수인선의 철교 구간으로, 레일은 철거됐지만 교각과 철재 상판은 여전히 건재하다. 풍파를 견디다 못해 끊긴 다리. 고개를 들어 거친 굴곡의 시간을 가늠해 본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 — 다**

다리가 놓이면 섬은 ‘섬’이 아니다. 용유도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무의도는 가깝지만 뱃길로 가야 하는 섬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무의대교’가 놓이면서 섬과 섬 사이의 간극이 메워졌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선착장은 텅 비었다. 이제 뱃길이 아닌 다리로 서로의 터전을 자유롭게 오간다. 무의도 큰 섬과 작은 섬 사이에는 또 다른 다리가 있다. 소무의도로 향하는 약 400m의 짧은 길은, 오직 두 발과 두 바퀴에만 발길을 허락한다. 다리에 오르는 순간, 8개 구간 총 2.48km의 무의바다누리길이 열린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차분하게 길을 밟는다. 바람 끝에 짙내가 진하게 묻어난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육지와 만나는 강화도는 형제 섬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 가운데 첫째 섬 교동도와 둘째 섬 석모도는 강화 본섬과 다리로 이어져 있다. 섬과 섬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은 새로운 세상을 연다. 본섬에서 불과 1.2km, 강화 치맛자락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석모도는 ‘섬 속의 섬’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석모대교’가 놓이면서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전국에서 찾는 관음도량이 있고 온천이 뜨겁게 샘솟는 섬. 배 타고 가던 길을, 이제 차로 썩썩 달린다. 유배의 섬 강화도에서 또 유배된 섬, 교동도. 한반도가 두 동강 나면서, 이 섬 북쪽 해안선은 황해도 연백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렸다. 철조망을 두르고 저 멀리 물러나 있던 섬은, 2014년 7월 ‘교동대교’가 놓이면서 가까워졌다. 다리 입구부터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해 긴장감이 흐른다. 다리를 건널수록 다가오는 섬. 남북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지길 바란다.

덕적도 본섬 남동쪽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소야도. 지난해 5월, 연도교가 놓이면서 두 섬은 한 몸이 됐다. 덕적도에서 소야도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한 운전 기사 어르신은 소야도가 고향이다. “이 가까운 길을 오랫동안 참 힘들게도 다녔어. 이제, 한 섬이지 뭐야. 고향 땅이 넓어진 것 같아.” 선착장에서 시동을 건 버스가 굽이굽이 섬 길을 따라 일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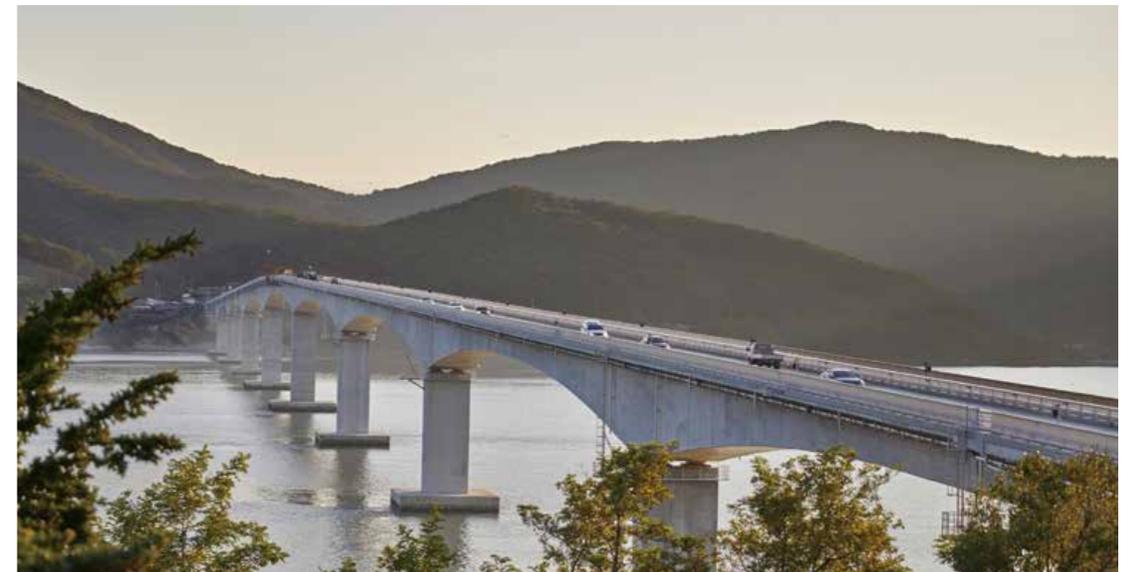


교동대교가 놓이고, 철조망을 두르고 물러나 있던 섬이 가까워졌다.

덕적도 본섬과 소야도를 잇는 연도교. 그렇게 섬과 섬은 하나가 됐다.

섬 속의 섬 석모도. 배 타고 가던 길을, 이제 차로 달린다.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다시 섬으로. 다리는 공간의 마디를 타고 흐른다. 둘러싼 풍경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의,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길.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된다. 무심코 스쳐 지났다면, 오늘은 다리가 있는 풍경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강화도의 힘 강화와갯벌의 장어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지리적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딱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인천의 산과 바다, 숲,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을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첫 번째는 ‘강화갯벌장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더리미 너머로 보이는 염하.
만선으로 출렁이던 역사의 바다다.



‘역사의 바다’ 가르던 고기떼

· 무수한 시간의 층 사이 한민족의 숨결이 서린 땅, 강화도. 도심에서 한강 물결을 따라 서해로 흘러들면 강화 땅에 다다른다. 강화도는 제주, 거제, 진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육지와 이어지면서 오래전에 ‘섬 아닌 섬’이 됐다.

강화도 ‘더리미 장어마을’은 눈으로 이정표를 보지 않아도 코끝이 먼저 알아챈다. 장어 굽는 냄새가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있는 까닭이다.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돌아 5분 남짓 달리면 장어구이 집들이 한데 어우러진 마을을 만난다. 1990년대 한창때는 10여 가계가 성업을 이뤘지만 지금은 절반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어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간다.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그 앞바다는 마치 강 같다 하여 염하(鹽河)라는 이름이 붙었다. 염하는 예부터 우리나라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다. 조선 시대에 삼남 지방에서 온 세곡(稅穀船)이 이 물길을 따라 한강을 건너 나라의 곳간을 채웠다. 외세의 침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개항기 때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 운요호사건(1875년)을 치른 격전지로, 바다 깊숙이 선열들의 붉은 피가 흐른다.

강과 바다가 마주쳐 굽이치니 바닷고기가 많이 나고 장어, 황복 같은 민물고기도 지천으로 넘쳤다. 특히 비바람이 거세질 가을 무렵엔 마을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다. 지금은 만선의 기쁨을 잊은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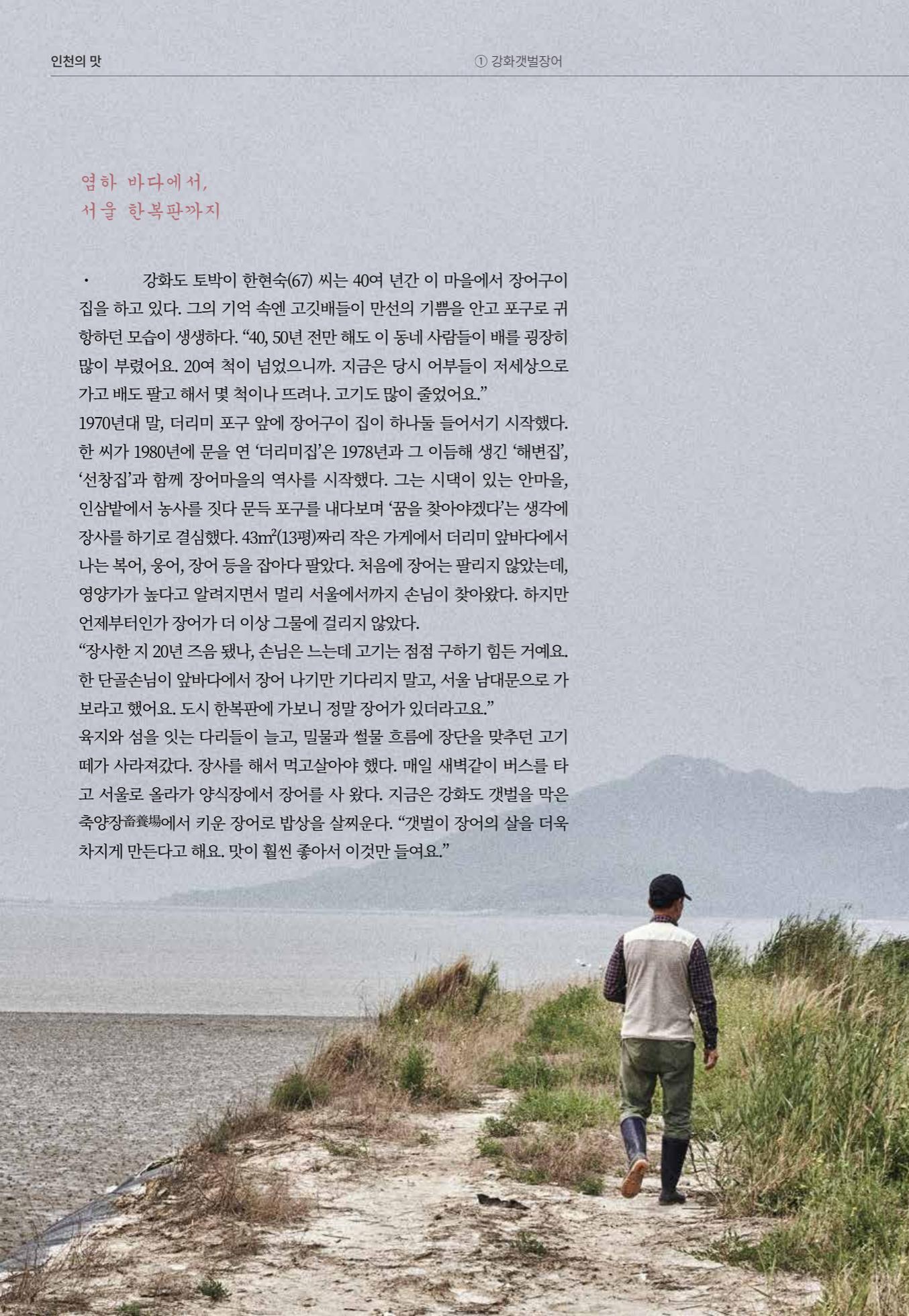
염하 바다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강화도 토박이 한현숙(67) 씨는 40여 년간 이 마을에서 장어구이 집을 하고 있다. 그의 기억 속엔 고깃배들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포구로 귀향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40, 50년 전만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배를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20여 척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당시 어부들이 저세상으로 가고 배도 팔고 해서 몇 척이나 뜨려나. 고기도 많이 줄었어요.”

1970년대 말, 더리미 포구 앞에 장어구이 집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 씨가 1980년에 문을 연 ‘더리미집’은 1978년과 그 이듬해 생긴 ‘해변집’, ‘선창집’과 함께 장어마을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는 시택이 있는 안마을, 인삼밭에서 농사를 짓다 문득 포구를 내다보며 ‘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43㎡(13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더리미 앞바다에서 나는 복어, 용어, 장어 등을 잡아다 팔았다. 처음에 장어는 팔리지 않았는데,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멀리 서울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장어가 더 이상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

“장사한 지 20년 즈음 됐나, 손님은 느는데 고기는 점점 구하기 힘든 거예요. 한 단골손님이 앞바다에서 장어 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 남대문으로 가 보라고 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가보니 정말 장어가 있더라고요.”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들이 늘고, 밀물과 썰물 흐름에 장단을 맞추던 고기 떼가 사라져갔다. 장사를 해서 먹고살아야 했다. 매일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양식장에서 장어를 사 왔다. 지금은 강화도 갯벌을 막은 축양장(蓄養場)에서 키운 장어로 밥상을 살찌운다. “갯벌이 장어의 살을 더욱 차지게 만든다고 해요. 맛이 훨씬 좋아서 이것만 들어요.”



축양장(蓄養場)을 돌며 낚시를 즐기는 김형근 대표. 바다 너머로 석모도가 보인다.



갯벌에서의 사투,
75일의 기다림

세계 5대 갯벌을 품고 있는 너른 땅. 끝없이 펼쳐진 검은 해변은, 세상 모든 것을 품에 안아 정화하고 생명을 길러낸다. 강화도 특산품인 ‘강화갯벌장어’는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빚어낸 귀한 먹을거리다.

‘강화소루지양식장’의 김형근(61) 대표는 30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3년 전 경남 창원에서 강화로 왔다. 그리고 강화 토박이인 손위 누이와 지금은 돌아가신 매형이 16년간 운영하던 장어 양식장을 이어받았다. 축양장은 갯벌을 막아 만들어 자연 그대로다. 물이 들고 나는 사이 새우, 망둥이, 게 등 갯것들도 덩달아 이사를 온다. 그 안에 풍천장어로 유명한 전북 고창과 전남 함평에서 들여온 장어를 두 달 이상 풀어놓는다. 먹이는 주지 않는다. 주인장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건 수질과 염도, 온도를 관리하는 일인데, 결코 쉽지 않다.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한겨울에 처음 강화로 왔는데 하우스에서 키우던 장어가 다 죽어버려서 절망했어요. 이후 ‘장어를 절대 죽이지 말자’는 심정으로 양식에 매달렸지요.”

살아 있는 것들은 참으로 경이롭다. 장어는 환경이 바뀌면 처음엔 움직이지 않다가, 염분 농도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 그렇게 75일간 갯벌

망이 가득 차오르면, 어부의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진다.
섬사람들에게 장어는 삶의 허기를 채우고,
살아갈 힘을 주는 귀한 물고기다.





안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다시 태어난다. 적응하지 못한 건 죽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민물장어를 축양장에 넣고 75일 후에 꺼내면 살이 빠지면서 무게가 15% 줄어요. 죽는 놈까지 더하면 30%까지 손실이 나지요. 하지만 탈바꿈한 장어는 육질에 탄력이 붙어 상품 가치가 높아집니다.” 거친 물살과 갯벌을 휘저으며 단련된 탱탱한 살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독특한 풍미를 낸다.

해가 지는 더리미 포구, 낡은 배들이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자고 있다. 만선으로 출렁이던 바다는 예전 그대로 흐르는데, 번성했던 과거는 나이 든 어부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다. 세찬 바람이 부는 가을 무렵이면, 염하의 거친 물살을 이기고 살이 도톰하게 찬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예전만은 못해도 이 희망은, 여전히 섬사람들을 살아 가게 하는 힘이다.



바다의 힘이 고스란히. 이 펄떡거리는 생명체에 강화갯벌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다.



장어, 양을 일으키고 몸을 보하다

건강을 잘 돌본다는 보양保養의 뜻도 있지만 보충한다는 보양補陽의 뜻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장어를 허로虛勞를 보하고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폐결핵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험을 보인다고 기록한다. 특히 본초강목과 동의보감 전음前陰 편에 ‘양을 일으키고 몸을 잘 보한다’고 나와 있다.

갯벌의 힘을 고스란히, 갯벌장어구이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 식감이 탱글탱글
쫄깃한 장어의 속살이 그대로

김옥례(67) 씨는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19년 전, 강화도 양도면에서 갯벌장어를 키우는 ‘강화소루지양식장’을 시작했다. 지금은 동생이 축양장을 이어받고, 그는 언니와 함께 식당 일을 돕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갯벌장어는 민물장어에 비해 맛이 달고 질도 다르다. “민물장어는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살이 흐물흐물한데, 갯벌장어는 쫄득하고 맛있어요. 비린내도 거의 없지요.” 장어를 기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강화 갯벌에서 뒤엎겨 자란 장어는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 식감이 탱글탱글하다. “천일염으로 간해서 구우면 끝, 요리할 것도 없어요. 그래야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갯벌장어의 가격은 1kg당 6만9,000원으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하다. 1kg을 시키면 두세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강화소루지양식장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64 ☎ 032-937-4236

100년 이어갈 ‘더리미의 맛’

20여 가지 특제 소스로 버무려
숯불에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해



더리미집의 한현숙 대표.

더리미 장어마을의 터줏대감 ‘더리미집’은 강화소루지양식장에서 기른 갯벌장어를 식탁에 올린다. 자연산 장어도 단골들이 찾으면 특별히 구해다 준다. “예전엔 10월 말이면 장어가 몽탕이로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지금도 간혹 잡히는데, 그러면 뱃사람들이 횡재했다며 아주 좋아하지요.” 풍요롭던 더리미 포구를 떠올리며 주인장 한현숙 씨가 열게 미소를 짓는다. 이 집에선 토실토실 살이 오른 장어를 직접 담근 고추장에 20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특제 양념장에 버무려 내놓는다. 숯불에 장어를 올려 구우면 육질에 자글자글 기름기가 흐르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강화 순무김치, 유자청을 버무린 강화인삼, 속노랑고구마묵 등 강화 특산물로 만든 반찬도 한상 차려진다. 장어구이를 다 비우고 나면 장어죽이 나온다. 차지고 담백한 맛이 그만이다. 앞으로 100년은 이어가야 할 맛이다. 더리미집은 최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30년 이상 전통을 지켜온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더리미집
강화군 선원면 해안동로 1219 ☎ 032-932-0787



본문

두 바퀴로 누리는 가을, 강화도

어느새 하늘이 저만치 높아졌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뜨거운 여름 내내 움직임을 즐겼던 몸을 추슬러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길 떠나기 좋은 계절, 자전거를 앞세우고 강화도로 향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자전거 여행길

초지진



덕진진



용두돈대



광성보



용당돈대



더리미 포구



갑곶돈대

자전거로 여행하기에 최적화된 강화도

강화도는 자전거 여행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비교적 널찍한 자전거 도로와 고인돌, 초지진, 마니산 참성단 등 여러 문화재와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전문 라이딩이 아니더라도 친구 또는 가족끼리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로 자연을 누리는 것이 강화도에서는 가능하다.

강화도의 긴 해안도로를 한번에 둘러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라이딩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선두리, 외포리, 초지대교, 일단, 강화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달릴까 살펴보니 해안가에 이어진 강화나들길(2코스)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원하게 해안가를 달리는 것도 매력 있지만 ‘돈대’라는 이름의 옛 해안 초소들이 해안가에 늘어서 있어 의미 깊다. ‘돈대’는 성벽 위에 석재 또는 벽돌을 쌓아서 망루와 포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작은 성이다. 강화도가 근대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잘 반영한 이름이다. 용두돈대, 오두돈대, 화도돈대, 용당돈대, 갑곶돈대...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그래서 이곳 강화나들길의 또 다른 이름은 ‘호국돈대길’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득 담고 있을 법한 길, 초지진~광성보~갑곶돈대까지 17km의 해안 길을 페달로 밟아보기로 했다.





**아름다운 풍경 품은
돈대에 담긴 아픈 역사**

강화도의 자연을 누리기 위해 자전거를 차에 실었다. 인하대 자전거 동호회 ‘인하 라이더’ 회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라이딩을 떠난다. 이날은 강화도 라이딩을 위해 신한길 동호회장을 비롯해 이상권, 윤경원 회원이 함께했다. “강화도는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고 다양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은데, 강화도까지 자전거로 가는 길이 험난해요. 오늘처럼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강화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벼운 코스도 많거든요.” 이상권(24·인하대 기계공학과4) 씨는 강화도 매력을 누리기 위한 교통 인프라가 조금 더 갖춰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초지대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강화도 남단 해안로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이어졌다. 강화도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초지진에 잠시 들렀다. 병인·신미양요, 윤요호 사건 등 근대에 가장 즐기차게 싸운 격전지인 초지진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기 위해 조선 효종 7년(1656년)에 구축한 요새다. 지금 진의 모습은 1976년 복원된 것이라 한다. 초지진에는 외적의 공격을 막아내던 관군의 붉은 피가 물든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당시 격렬한 전투의 흔적은 아직도 성곽 입구 소나무의 포탄 흔적으로 남아 있다.

INFORMATION

우리 시는 지난 7월 23일 강화도 북쪽 비무장지대(DMZ)인 강화읍 대산리~양사면 철산리 구간의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를 개통했다. 이 도로에는 일반 도로(폭 8.25m), 자전거 도로(폭 3m), 철책선 내 군 전술 도로(폭 4m)가 함께 건설됐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초지대교~강화대교~연미정~평화전망대로 가는 강화 동쪽 해안 도로와 더불어 25km의 자전거 길이 연결됐다. 시는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일반인과 동호회 회원들이 비무장지대에 곧게 뻗은 자전거 길을 달리며 남북 평화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강화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해안순환도로는 이날 2공구 개통에 따라 총 84.3km 중 64.5km(76.5%)가 개통을 마쳤다. 시는 올 하반기 4공구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자전거 타기 안전 수칙

- 하나.**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자.
- 둘.** 휴대전화, DMB 그리고 이어폰을 통한 과도한 음악 재생은 주의력과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둔감해지므로 자제하자.
- 셋.** 야간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다른 자전거를 위해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달리자.
- 넷.**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과속은 하지 말자.

**다양함과 심이 있어
초보자도 무난한 코스**

속연해지고 무거워진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강화도의 자전거 길은 인위적으로 산을 파헤치지 않았다. 차도 옆에 길을 내고 경계선까지 확보되어 안전하고 편하게 달릴 수 있다. 높지 않은 굴곡 코스가 라이딩 내내 계속되고, 주변으로 불거리와 편의 시설이 다양해 지루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바닷가·갯벌·농로·독길을 오른쪽에 끼고 돈대와 강화 외성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직 푸른빛을 가득 머금은 논과 드높은 미루나무가 길을 시원하게 하고, 코스모스와 들꽃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드넓은 갯벌이 멀찍이 펼쳐져 있다. 물새 몇 마리가 개펄 위를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풍경이 여유롭다. 해안가로는 버려진 초소들도 눈에 띈다.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시원한 바람과 마주한다. 자전거의 묘미는 바로 이것이다. 계절에 맞는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지나치는 풍경이 아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출 수 있다. 페달을 밟는 동안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라이딩 중간에 만나는 돈대를 둘러보다 보면 적당히 휴식도 취할 수 있어 초보자도 자전거 타기가 어렵지 않은 코스임이 분명하다. 강화도의 진면목을 오감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번 가을엔 자전거로 강화도를 달려보자.



도심 속 푸른 공원에서 즐기는
심과 여유로움



인천가족공원

부평삼거리를 지나다 보면 ‘인천가족공원’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인천가족공원은 추모 공원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복원해 온 덕분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누리는 나들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매년 펼쳐지는 ‘소풍 나들이 축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된 가족공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공원 면적 : 160만㎡(약 50만 평)

봉안 시설

봉안당 : 4개소 10만1,835기

(2020년 별빛당 3만9,000기 추가 개소)

봉안담 : 1만970기

자연장 : 4개소 1만1,066기

외국인 묘역 : 9,330기

그 외 장사문화홍보관, 상가동,

세월호 추모관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나들이 공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부평삼거리역에 하차해 5분 정도 걸으니 눈앞에 초록 물결이 가득 펼쳐진다. 밝은 햇살 아래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흐릿한 눈에 생기를 돌게 한다. 다양한 수층 생물과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시원한 생태 하천은 흡사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깔끔하고 정갈하게 단장된 공원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잘 다듬어진 산책로와 휴식 시설 덕분에 나들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인천가족공원’. 특히 가족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만월산 일주도로는 등산로로 개방하고 있어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이나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



인천가족공원 안에 마련된 '잔디장'에서 추모하고 있는 시민.(위)

지난 8월 준공을 마친 3만9,000기 규모의 별빛당(봉안당)은 내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아래)



| 가족공원 조성 계획 |

1단계 2006~2011년
만월당, 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상가, 생태 하천 조성 등

2단계 2011~2016년
평온당, 외국인 묘역, 봉안 시설, 자연장, 쌈지마당, 소로 정비 등

3단계 2016~2040년
3-1단계(2016~2020년) : 별빛당 건립, 자연장 조성, 산림 자원 복원 등
3-2~3-5단계(2020~2040년) : 자연장 조성, 산림 자원 복원 등



하는 코스다. 농선을 타고 오르내리는 즐거움 덕분에 주말엔 많은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을 볼 수 있다고.
이용희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과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하고, “만월산, 광학산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가족공원으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추모 공원

인천가족공원은 장사 시설에 다양한 문화 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추모 공원이다. 추모 공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외국에서는 쾌적하게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대화된 장묘 시설과 공원 조성을 통해 기존의 칙칙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다. 덕분에 인천

가족공원은 기피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인천가족공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5월 야생화 정원, 장미 터널 등을 조성해 ‘인천가족공원 소풍 나들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축제는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키즈존(에어바운스), 어린이 사생대회, 스탬프 투어, 노래자랑 등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복원

인천가족공원은 1940년대 공동묘지 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이후, 1971년 묘지 공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이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친화적인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40년까지 총 3단계의 재정비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미 2006~2011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만월당과 관리사무소, 홍보관, 생태 하천, 벽천분수 등이 조성됐으며, 2011~2016년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서는 평온당과 외국인 묘역, 자연장, 쌈지마당 등이 조성됐다.
2040년까지 진행될 3단계 사업은 다시 5개 세부 계획으로 나뉘어 봉안당과 자연장을 짓고 산림 자원을 복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3-1단계 사업은 공원 24만7,441㎡ 부지에 3만9,000기 규모의 별빛당(봉안당)과 테마형 자연장지 1만4,000기, 산림 복원, 산책로 조성, 도로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별빛당은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또 시민들의 성묘 편의를 위한 봉안 시설 사용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성묘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추석 전까지 계단식 묘에 안전 울타리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까지 진행될 3-2단계 사업까지만 봉안당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후 모든 장묘 시설을 자연장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열차 기적과
뱃고동...

기억,
소리로 남다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이번 호에는 경인방송 안병진 PD와 이진희 작가 부부가 사는 배다리 주택 '오봇'을 찾았다. 도심의 아파트에 살 때는 '소리'가 아닌 '소음'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 동네에선 1호선 열차의 기적과 항구의 뱃고동 소리, 창영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온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낮은 담장을 두른 '오봇' 앞에서, 원도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안병진, 이진희 부부



2층 발코니 옆 의자에 편히 앉으면, 여기가 '오봇이 내 집,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유욕과는 다른 느낌이다.

아파트 떠나,
원도심 주택으로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부부는 '부~' 하는 뱃고동 소리에 잠을 깬다.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나.' 바닷물이 드나드는 큰 개울과 배를 대는 다리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배다리'. 동네에 그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동갑내기 안병진(43), 이진희(43) 부부는 동구 창영동 배다리에 산다. 경인방송 라디오 PD와 작가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8년.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 그들 삶의 터전이다. 처음엔 연수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렸다. 가진 것에 맞추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아파트를 전전해야 했다. '우리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그러다 '아파트 전셋값으로 주택을 사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집을 사 고쳐 살게 됐다. 중구 개항장 일대 주택가를 둘러보다 배다리까지 왔다. 인천 토박이 남편과 그를 따라 이 땅에 정착한 아내는 평소 함께 원도심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깊고 오래된 도시를 '발견'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하지만 마을 주민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작가는 말한다. "시야를 넓히다 보니 무심코 스쳐 지나던 것들이 보이고 시각이 달라졌어요. 머물러 보니 왜 진작 옛 동네에 살기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나 싶어요." 언뜻 보면 평범하지만 세월이 깃든 낡은 풍경,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있는 고마운 동네 배다리. 처음엔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인천이 일상으로 파고들었듯, 이 공간도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장소든
그 안에 담긴 물건이든,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된다



집 옥상에 오르면 현책방이 보일 듯 말 듯하고, 창문으로는 옆집 기와 처마가 들어온다.

옛것에 담긴 '이야기',
그 소중함

창영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1980년대에 지은 48.47㎡(14.7평) 면적의 2층 벽돌집이었다. 4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건물은 높다란 담장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숨죽여 있었다. 동네와 한데 어우러지고 싶어 벽을 낮추는 일부터 했다. 담 너머로 마음과 마음이 오가고 골목 분위기가 밝아지자 동네 사람들도 반가워했다.

무엇보다 오래된 공간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새롭게 이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모여 살던 조촐하고 아담한 집. 모두 고만고만한 형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오순도순 자식들 키우고 살림살이 불려가며 희망을 키웠을 것이다. 그 소박하지만 빛나는 삶의 의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면서,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 이어졌다. 건물 골조와 외관은 본모습 그대로 유지해 시간의 연속성을 이었다. 2층에 있는 나무틀로 감싼 유리 문도 원주인이 남기고 간 걸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어제와 오늘의 시간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 오밀조밀 새롭게 꾸몄다. '오봇'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붙였다.

안 PD는 오래된 것에 담긴 '이야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장소든 그 안에 담긴 물건이든,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됩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주인이 떠난 텅 빈 공간, 그 안에 남겨진 물건에도 스쳐간 사람의 마음이 투영되기 마련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좋아요."



부부가 새 숨을 불어넣은, 버려졌던 물건들.



원도심의 소리를 담는 그의 녹음기. 인터뷰 내내도 켜져 있었다.

'튼튼한 집'과 '예쁜 집' 중에서, 부부는 '10년 이상 살 튼튼한 집'을 택했다.



'소리 채집꾼' 안 PD는 오늘도 잊고 있던 소리를 찾아 골목골목을 누빈다.

'소리'로
'공간'을 듣다

원도심에 정착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2년 전 그 해 달력이 한 장 남았을 때, 이 동네로 와 살면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생활하는 데 기본인 도시가스를 들이는 일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였다. 사람들이 머물어야 원도심이 산다. 그러기 위해선 삶의 기반부터 갖춰져야 한다. 안 PD는 말한다. "마을에 꽃 심고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재생'이 아닐까요?"

부부는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소리를 채집해 세상에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이 인천 곳곳을 누비며 소리를 그려모으면, 아내는 이야기로 새 숨을 불어넣는다. 배다리에 온 후로는 잊혀가는 원도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공간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골목길 동네 출신입니다. 그곳을 떠난 사람들에게 잊힌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안 PD가 채집한 원도심의 소리는 다음 달 '골목길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전파를 탄다. 항구의 뱃고동, 1호선 열차가 지나는 소리, 땡그렁거리는 두부 장수의 종소리, 창영초등학교 야구부 아이들의 함성... 까마득히 잊고 있던 소리들. 흘러가는 시간 속 기억의 일부가, 그의 녹음기 안에 오롯이 남겨져 다행이다.

일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문화

떡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아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있다. 아직 동이 트려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새벽. 대를 이어 7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성광떡방은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성광떡방 (조선떡집)
떡·米糰·Rice Cakes

중구 우현로
☎ 032-772-5093, 011-263-5093



성광떡방의 이종복 사장



꿀처럼 달콤하게 새벽을 여는 성광떡방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어두운 새벽 4시. 신포국제시장 골목에 있는 성광떡방에 환하게 불이 켜진다. 이른 새벽부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이곳엔 방앗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종복(57) 사장이 있다. 그의 하루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전날 불려놓은 쌀을 살펴보고, 주문받은 떡을 만들기 시작한다. 큰 대야에 가득 담겨 있는, 4~8시간 불린 쌀의 물을 빼고 제분기에 넣자 곱게 빻아진 흰 가루가 쏟아져 내려온다. 한 번 더 제분기를 거쳐 쏟아지는 고운 쌀가루는 하얀 눈처럼 빛났다. 그렇게 기계로 빻은 찹쌀가루에 천 일염 한 줌 고루 뿌려 섞은 뒤 시루떡 틀에 넣고 평평하게 편 다음, 꿀을 넣고 다시 쌀가루를 그 위에 두텁게 덮는다. 그리고 칼로 바둑판처럼 선을 그어준다. 자를 대고 그은 것도 아닌데, 선의 간격과 모양이 자로 잰 듯 일정하다. “이렇게 칼금을 그어줘야 떡을 찢을 때 스팀이 잘 들어가 떡이 골고루 잘 익고 완성된 떡을 떼어내기도 좋거든요.” 이종복 사장은 설탕이 귀했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다는 꿀설기를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떡이라고 말한다. 이제 시루떡 틀을 스팀에 올리고 강하게 찢면 꿀을 품은 백설기처럼 부슬부슬하고 촉촉한 ‘꿀설기’가 완성된다.



투박한 아버지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전통의 맛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언제든 떡을 먹으러 올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게 말이죠.

**우리네 삶과
 닮아 있는 떡**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 중 하나가 바로 떡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백일과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떡이 함께하니까요. 명절에도, 누군가 대접할 때도 항상 떡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인 거죠.” 떡을 만드는 내내 들려주는 이 중복 사장의 얘기는 떡만큼이나 맛깔스럽다.

이번에는 불린 쌀을 썩과 섞어 제분기로 곱게 빻는다. 순간, 기분 좋은 썩향이 떡집 안을 가득 메운다. 썩은 해풍 맛은 섬썩이 최고라며 이중복 사장의 아내가 강화도, 영종도, 덕적도 등지에서 직접 캐온다고 한다. 썩과 함께 곱게 갈린 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한다. 성광떡방의 떡이 유난히 찰진 이유는 바로 악력에 의한 반죽에 비법이 있다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로 힘들게 반죽을 마치면 이제 송편을 만들 차례다. 일정한 크기로 반죽 덩어리를 떼어내 납작하게 펴고 설탕과 깨를 섞은 소를 넣은 다음 예쁘게 모양을 잡아준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송편을 제일 못 만들어요. 아내와 아들, 딸이 만든 건 다들 기계로 찍었냐고 할 정도로 정말 예쁘거든요.”

찜기에서 꺼낸 송편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꿀꺽 침이 넘어가지만 송편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막 찜낸 송편은 맛이 별로 없어요. 백설기, 가래떡과 달리 송편은 완벽하게 식혀야 밀도가 높아지고 쫄득쫄득 해지거든요.”



가게에 걸려 있는 간판은 이중복 사장이 직접 만든 것. 신포국제시장의 유명한 민어집이 가게를 접으며 기증한 도마에 직접 조각을 새겼다.



**7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전통의 맛**

“아버지가 1956년에 떡집을 시작했는데, 방앗간을 한 것까지 치면 1947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 1988년부터 제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70여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성광떡방은 신포국제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떡집이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중복 사장의 떡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요즘 떡들과 비교하면 투박하기만 하다. 애써 모양을 내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떡에서 그의 정직함을 느낄 수 있다.

성광떡방 찜기 위에는 요즘 흔히 보는 타이머가 없다. 떡집 어디에도 계량기나 계량컵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몸이 알아야요. 어느 정도 지나면 떡이 잘 익었겠구나, 이 정도 넣으면 간이 맞겠구나 감이 딱 오죠.” 아버지가 해온 일을 어릴 때부터 평생 눈으로, 몸으로 익혔던 그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4년째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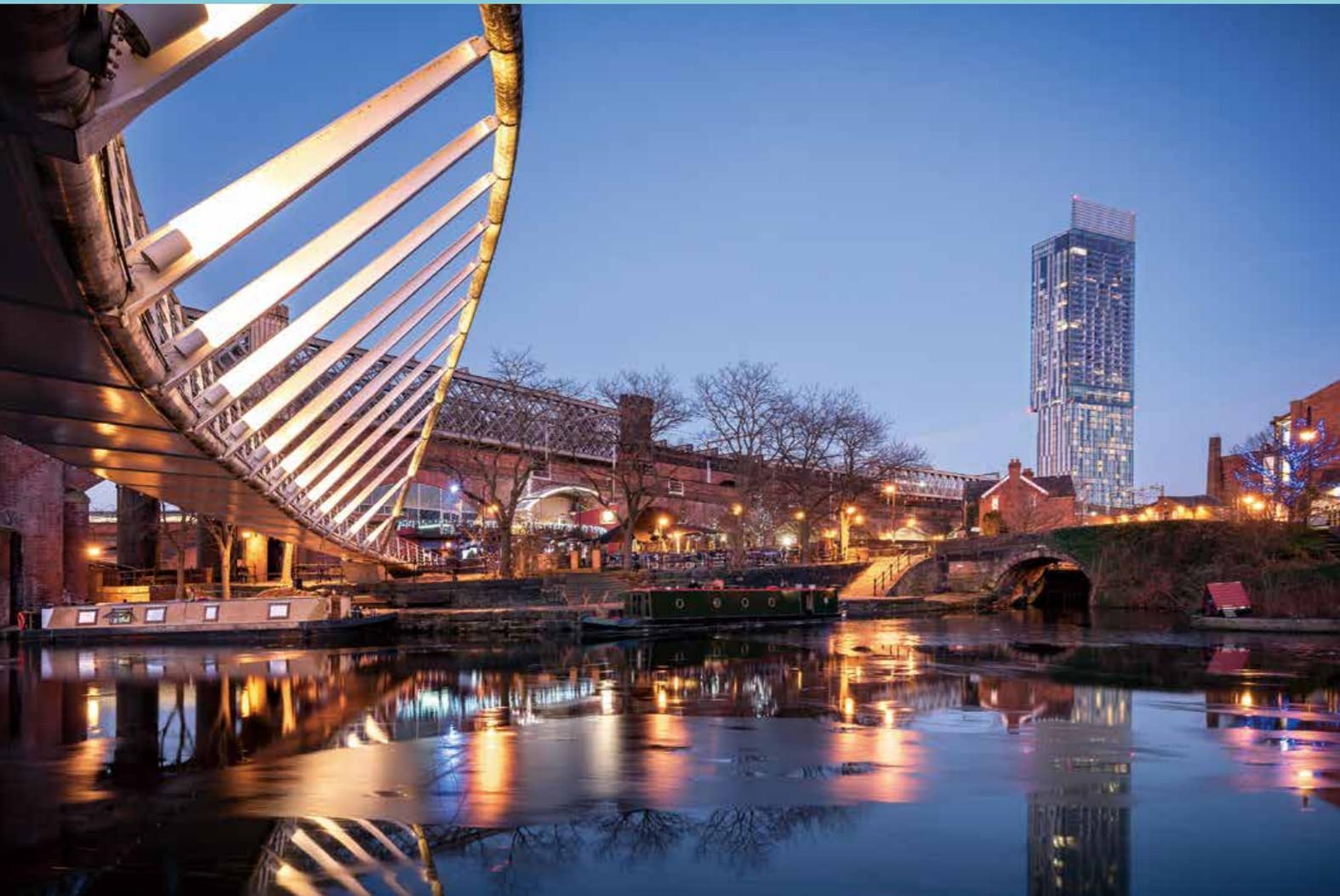
이중복 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량화해 떡 레시피를 만들자고 권유한다. 하지만 ‘떡은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만들어본 사람이 최고다’라는 신념으로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전통의 맛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언제든 떡을 먹으러 올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게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문받은 떡을 만들고 떡이 다 만들어지면 일일이 배달하고 바쁜 하루를 보낸다. 그 와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이중복 사장의 또 다른 직업은 시인이자 칼럼니스트. 태어나고 자란 ‘신포동’과 인천에 대한 애정을 담은 칼럼이 셀 수 없이 많다. 내년에는 <인천 짬뽕(가제)>이라는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인천은 짬뽕 같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인천에 터를 잡고 살고 있지요. 그것이 인천의 에너지이자 인천의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떡집이 신포국제시장의 터잡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SERIES 9.
ENGLAND MANCHESTER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에 자리한 도시 | 면적 약 115.60km² | 인구 약 50만 명(2011년 기준)



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뉴욕, 런던보다
맨큐니언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아홉 번째는 잉글랜드 맨체스터(Manchester)다.

글 윤석진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사진 셔터스톡

새로운 기회가 만든 다양성의 도시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맨체스터는 런던, 버밍엄과 더불어 영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다. 국내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축구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를 탄생시켰다. 맨체스터대학교의 언어학자 야론 마트라스(Yaron Matras) 교수에 따르면, 맨체스터주(Great Manchester)에서만 약 200개가 넘는 언어가 구사되고 있을 것이라 한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민족이 맨체스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독일, 그리스, 아르메니아 출신 이민자들이 맨체스터의 비즈니스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고, 아일랜드와 동유럽 이민자들은 도시 노동자가 됐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영연방 국가(Commonwealth of Nations), 아프리카, 아시아 이민자들의 유입이 이뤄졌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든 다양한 민족들이 맨체스터에서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매년 6월, 맨체스터 시티 카운슬(Manchester City Council)이 조직하고 맨체스터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공동체(마을, 학교, 민족, 시민 단체 등)가 참여하는 ‘맨체스터의 날(Manchester



Day)’은 이 도시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행사다. 모스 사이드(Moss Side)의 소말리아 커뮤니티, 치덤 힐 로드(Cheetham Hill Road)의 맨체스터 유대인 박물관(Manchester Jewish Museum), 어퍼 브룩스 스트리트(Upper Brooks Street)의 아르메니아 교회(Armenian Church), 포틀랜드 스트리트(Portland Street) 주변의 차이나타운, 윌슬로 로드(Wilmslow Road) 초입의 커리 마일(Curry Mile) 등은 맨체스터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함을 보여주는 맨체스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이다. 영국 최고의 커리와 팔라펠은 커리 마일에서만 맛볼 수 있으니 관광객들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맨체스터 출신 록 밴드 오아시스(Oasis).(왼쪽)

명문 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오른쪽)

매력적인 인디 문화의 성지

산업혁명, 축구와 더불어 맨체스터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는 ‘대중음악’이다. 맨체스터는 1990년대 ‘브릿팝(Britpop)’의 전성기를 이끈 오아시스(Oasis) 외에도 비지스(Bee Gees), 허먼스 허미츠(Herman’s Hermits), 더 스미스(The Smiths) 등 1960년대부터 많은 그룹이 탄생하고 활동했던 도시다. 오늘날에도 맨체스터는 영국 록 음악과 인디 음악의 중심으로서 Manchester Arena, Manchester Apollo, Manchester Central 그리고 Manchester Academy 등 대규모 공연장과 크고 작은 클럽이 즐비해 1년 내내 런던보다 저렴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피카딜리역에서부터 빅토리아역을 연결하는 노던 쿼터(Northern Quarter) 지역은 맨체스터에서도 인디 보헤미안 거리 문화의 중심지라 볼 수 있다. 과거 방직 공장과 물류 창고로 쓰였을 벽돌 건물 위에 알록달록하게 그려진 벽화는 노던 쿼터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엿보게 한다. 도시의 가장 ‘힙’한 식당, 카페, 펍, 클럽뿐만 아니라 독특한 독립 서점, 갤러리와 빈티지 숍이 모여 있어 개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쇼핑 성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지역에 둠지를 틀면서 맨체스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 맨큐니언 자부심과 정체성

맨체스터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일등공신은 맨큐니언(Mancunian)들이다. 맨큐니언은 맨체스터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맨큐니언들에게 맨체스터가 런던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살기 좋은 곳’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맨큐니언의 자부심의 중심에는 맨체스터가 영국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시민 의식이 한몫한다. 스피닝필드(Spinningfield)에 위치한 People’s History Museum에는 노동 계급을 탄생시킨 1819년 피털루 대학살(Peterloo Massacre)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 등 영국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맨큐니언



피카딜리역에서부터 빅토리아역을 연결하는 노던 쿼터(Northern Quarter) 지역은 맨체스터 인디 보헤미안 거리 문화의 중심지다.(위)

2017년 발생했던 폭탄 테러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렬.(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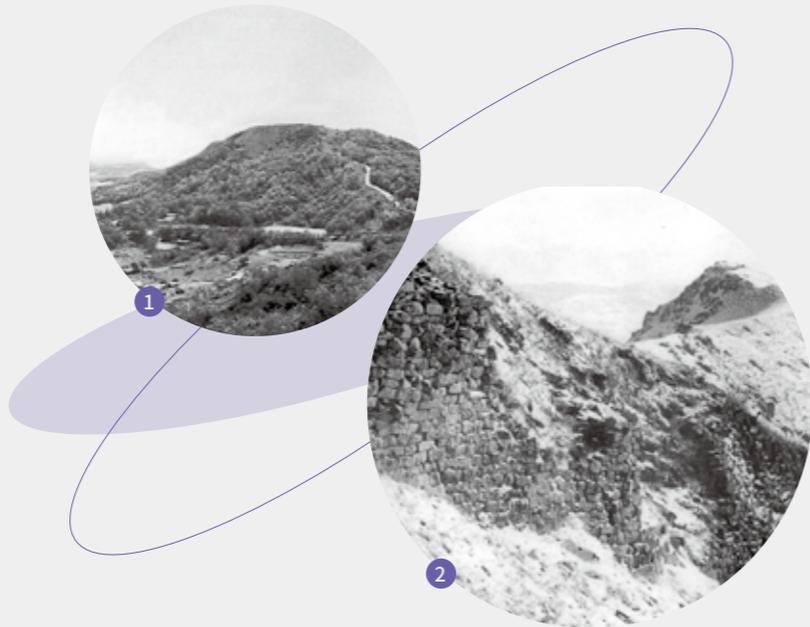


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2017년 Manchester Arena 폭탄 테러 사건은 맨큐니언의 연대 의식이 빛난 가장 최근의 사건이었다. 자살 폭탄 테러로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던 사건에 도시 모두가 슬퍼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거리의 노숙자는 주저 없이 부상자를 도왔고, 시민들은 무료로 집을 개방하거나 귀갓길 사람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맨체스터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가 됐다. 폭탄 테러 1주년 행사에서 낭독된 토니 월시(Tony Walsh)의 시 ‘This is the Place’에서는 맨큐니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지역과 출신의 이민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든 산업 도시 맨체스터. 맨체스터에 모여든 이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독특한 문화를 공유했고, 포용과 연대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맨체스터의 시민이 됐다. 지구 반대편을 돌면 수많은 이주민과 산업의 도시 인천이 있다. 우리 인천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부심일 것이라 믿는다.



‘인천’이라는 ‘별’에서 산 ‘행운’



글 조우성

인천 출생으로 현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는 사물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회화적인 시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 과학자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는 저 먼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구성 요소와 똑같다. 그것은 현생 인류의 근원이 되는 원소들이 아득한 시기에 우주에서부터 지구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인류는 별의 후예인 것이다.”

인류가 무한 공간 속 별의 후예라는 얘기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청년기의 어쭙잖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몽상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이 들어 다시 읽어 본 <코스모스>는 예전의 시공(時空)이 아니었다. 책장들은 그간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갈피에는 우주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앞으로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고희(古稀)를 넘기며 비로소 나는 이를 통해 세상사를 감히 시공적 관점에서 보려고 상념하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모두가 저 아득한 원소의 핏줄같이 이어져 있고, 그것들은 다 또 무엇 무엇의 후예들이라고 여기게 됐다.

그런 점에서 수십만 년 전 꽃을 피웠던 서구 검단 지역의 구석기 시대나 중구 송산 해안 일대에 자리 잡았던 신석기 시대, 강화의 여기저기에 보란 듯이 고인돌을 우뚝우뚝 세웠던 청동기 시대의 주인공들 역시 우주의 DNA를 지닌 먼 인류 선조들의 이주 후예라 생각하면 그때 그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인연에 숙연해진다.

2,000여 년 전, 고구려 주몽의 품을 떠나 미추홀에 당도한 비류는 역사 시대에 기록된 인천 이주민 제1호이었다. 그 같은 ‘이주(移住)’의 절정은 1883년 인천 개항 때라고 여겨진다. 개항은 ‘은둔의 왕국 조선이 자의든, 타의든 근대 자본주의의 변방에 편입된 일대 사건’으로 얘기되지만, 인천으로서는 역사의 전면에 떠오른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다.

1. 문학산의 옛 모습
2,000여 년 전, 고구려 왕자 비류가 이주해 온 문학산 일대의 풍경

2. 문학산성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 왜적을 물리친 문학산성의 의연한 모습

3. 개항장 제물포
1883년 개항 직후의 제물포. 인천은 근대 문물이 몰밀듯 들어온 선진지였다.

4. 6·25전쟁 때의 인천
포연이 피어오르고 있는 인천. 인천은 전쟁을 이겨내고 이룬 구국의 도시이다.

5. 연수구 신도시
인천의 도시 인프라와 확장성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의 미래는 밝다.

개항장 인천에는 백성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근대 문물이 몰밀듯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철도, 호텔, 우체국, 정미소, 영화관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쳇말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조선 8도 각지에서 꿈과 용기를 지닌 비류의 젊은 후예들이 러시를 이루며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그 후 인천은 6·25전쟁 때 내려온 피란민까지 합류해 함께 사는 ‘합중시(合衆市)’가 되었고 더불어 그 같은 다양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찌감치 망국적 고질병인 지역색을 졸업할 수 있게 했다. “우리가 남이가?” 식의 종족적 근친 의식은 있을 수 없었다. 사람을 쓸 때에는 애초부터 출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품성을 고려했다.

개항 후 인천은 사람을 지역이나 계급으로 보지 않고 사람 자체로 본 근대사회였다. 그래서 ‘해불양수(海不讓水)’적 포용성과 다양성과 역동성을 새로운 인자(因子)로 지니며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은 국가 운명을 좌우한 전쟁을 모두 이겨낸 구국의 도시이자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한 확장성과 인프라를 지닌 세계 속의 도시이다.

한 인간이 갖게 되는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 등은 모두 그 지역의 자연과 기후와 사회와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다. 역대 이주민이 다 그랬듯이 필자 역시 입때껏 인천에서 살아 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 자양분을 섭취해 왔고, 나아가 이 땅에서 살아간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큰 그늘로 알며 우리 공동체를 기리는 일에 미력이나마 동참해 오기도 했다.

나에게 ‘인천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주 속의 또 하나의 ‘별’이라 하겠다. 인류의 선조가 먼 우주에서 지구로 이주해 왔듯이 우리 또한 이 땅으로 이주해 온 ‘행운’의 주인공들 아닌가? 그에 겸허한 감사를 드려야겠다. 우리는 누구나 끝 모르는 우주적 시공 속으로 언젠가는 되돌아간다. 그때까지 숨 쉴 수 있게 해준 이 작은 별 ‘인천’을 사랑해야겠다.



평화롭고 안전한 인천의 바다를 위하여

서해5도특별경비단 신준상 경사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시
민
시
장
-
신
준
상

“도와주세요!” “아아!”

어디선가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양양 남대천계곡에서 가족과 모처럼의 여름휴가를 즐기던 그가 사방을 빠르게 둘러봤다. 계곡 위쪽 100m 지점. 소리를 지르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본능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그가 사고 지점을 향해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계곡 물 한가운데서 한 초등학생이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급류인데다 물이 깊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엄마로 보이는 여성조차 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지를 못했다. 풍덩. 물에 뛰어들던 그가 구조 수영으로 초등학생을 데리고 나오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머리카락과 소매 끝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가 아이 엄마에게 말했다. “살았으니 다행입니다.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은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다.

‘의인’의 정체가 드러난 때는 이틀 뒤인 7월 7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활약을 다룬 공중파 방송에 그가 등장한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신준상(41) 경사. 사고 당시 구조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TV에 출연한 그를 보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글을 올리면서 해양경찰이라는 신분이 밝혀졌다.

“구조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 경사는 “계곡의 크고 작은 돌밭을 맨발로 달려갈 때는 통증을 전혀 못 느꼈는데 사고 수습 뒤 발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며 “인간이 위험 상황을 맞닥뜨리면 초인적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저 자신도 놀랐다”고 말했다. 일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다. 휴가 복귀 이틀 뒤인 9일, 이번엔 업무 교대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들과 걸어가는데 한 외국인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겠다고 깊은 바다로 향하는 걸 동료들과 함께 구조했어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마음이 불편했던 그가 경찰이 된 건 2005년. 수영을 좋아해 관련 자격증 서너 개를 갖고 있던 그는 해경에 지원해 합격한다. 이후 해양경찰특공대, 경비함정 근무와 전술팀 저격반장, 교육팀 교관 등 여러 자리를 거쳐 지금의

위치에 왔다. 해상 테러 진압, 불법 어선 나포·퇴거, 인명 구조, 대민 지원 등이 그의 임무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맞습니다.” 신 경사는 “불법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하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해경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미소 짓는다. 하지만 수시로 야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몸이 고단한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오래도록 인천 앞바다에 머물러야 할 때면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이 눈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경이란 직업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 가치관에 꼭 들어맞는 천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머리에 발끝까지 행복해 보이는 그에게 개인적 소망이나 버킷리스트를 물어보았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정년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신 경사는 어떤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시원한 답변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황해를 지키고, 시민을 잘 섬기겠다는 바다 경찰의 의지가 가을 바다처럼 출렁였다.



CULTURE CALENDAR

SEPTEMBER 2019

09

이달의 展

‘뤼송 고택’ 刘喆峰(류한풍)
9월 15일(일)까지
제물포구락부

인천동아시아문화도시 대학생&교수 사진영상전
9월 15일(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외

페스티벌&페스티벌
9월 15일(일)까지
선광미술관

‘백명의 사진가전’ 중국사진가협회전
9월 15일(일)까지
한중문화관 전시실

‘심상 랜드스케이프전’ 吴力 우리 개인전
9월 15일(일)까지
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KFG ‘Invisible things(보이지 않는 것)’
9월 3일(화)~10일(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평사진동아리 ‘찰칵, 일몰이 아름다운 인천’
9월 3일(화)~10일(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창작대전
9월 6일(금)~1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미추홀전시실

2019 동아시아 생활문화 축제전
9월 13일(금)~2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미추홀전시실

퀵트랑 친구랑, 퀵트와 펫자수
9월 18일(수)~26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하 보태니컬, 생동하는 보태니컬
9월 18일(수)~26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중국 10대 화가 희준요, 기진민 초청전
9월 27일(금)~10월 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김미숙 개인전
9월 27일(금)~10월 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민화협회정기회원전
9월 27일(금)~10월 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7회 인천가톨릭 미술가회전
9월 27일(금)~10월 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01
인하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무료
☎ 010-3925-7060



선데이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9월 1일, 8일, 15일, 21일~22일, 29일 오후 4시
전석 1만원
☎ 032-289-4275

04
2019 스테이지 온 스크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4일~7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6

05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49회 정기연주회
아트센터 인천
오후 8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032-625-8330

06
2019 인천진로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9월 6일~7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무료
☎ 032-420-8417

코미디 연극 ‘톡톡’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9월 6일~7일 오후 3시·7시
전석 2만5,000원
☎ 032-460-0560

07
대한이종격투기 프로대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3홀
오후 12시 30분~5시
현장 등록 시 1만원(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32-442-7589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 문화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무료
☎ 010-8755-6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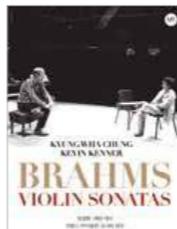
2019 커피콘서트Ⅶ 모노드라마 ‘너, 돈끼호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마티네 콘서트 ‘조재혁의 뮤직 인사이트’
아트센터 인천
오전 11시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 032-453-7700

아동·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30분
전석 1만5,000원
☎ 032-500-2000

19
차가운 유혹 그래도 다시 사랑, 양수경 콘서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 032-899-1517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틀
아트센터 인천
오후 8시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070-7579-3660



제19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인천국제유아교육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3, 4홀
9월 19일~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현장 등록 시 5,000원(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2-3453-8887

20
로맨틱 초이스2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20 *9월의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스테이지 149-뮤지컬 ‘쿵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9월 21일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2019 인천 카페&디저트 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9월 20일~22일
오전 10시~오후 6시
현장 등록 시 5,000원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2-6369-1899



21
2019 동아시아생활문화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야외공연장
9월 21일~22일 오후 2시
무료
☎ 032-887-8017

벨체아 콰르텟
아트센터 인천
오후 5시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032-453-7700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 컬처데이

9월에는 스테이지 149-뮤지컬 ‘쿵쾅’ 공연 티켓을 다섯 분께 2매씩 드립니다.

Good Morning Culture Day

25
2019 인천국제기계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3, 4홀
9월 25일~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 등록 시 5,000원(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2-6121-6380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2 ‘홍대광&오추프로젝트’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32-500-2000



마실-문학콘서트 ‘소나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무료
☎ 032-460-0560

학산가족음악회 ‘매풍’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
☎ 032-866-3993

26
이금희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032-500-2000

2019 전자신문ENT 골프IT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홀
9월 26일~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현장 등록 시 1만원(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31-453-0960

27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 032-899-7435



28
도시유람 ‘스타탄생 복두칠성’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14

29
2019 주현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7시
R석 9만9,000원, S석 8만8,000원, A석 7만7,000원
☎ 1544-7543



양혜순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032-289-4275

2019 클래식시리즈Ⅲ 상하이 콰르텟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1588-2341

<굿모닝인천>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0만 시민 여러분께 매일 문화를 선물합니다. <굿모닝인천> 모바일북 팝업 창으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일 다섯 분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 티켓 2매씩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1) <굿모닝인천>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에 접속한다.
2) 팝업 창을 클릭, 퀴즈 정답과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응모한다.
3)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다.
4)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IMAGE NEWS



GTX-B 노선 예타 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송도-서울-경기 잇는 80.08km 구간 #2020년 착공

01



반갑다, 워라밸*

#서울 청량리까지 27분 #경기도까지 30분대 진입 가능
#여유로운 출근길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의 준말

02



철길을 잇다
경제를 잇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와 #기업 유치 증가
#부평·남동·주안국가산업단지 발전 새로운 전기 마련
#접근성 강화로 폭발적 #관광객 유입 기대

03



120년 철도 역사,
새로 쓰는 철길 역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제2공항철도 사업
추진 기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우리 시는 조기 착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1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촌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8월 23일부터 조기 가동했다.

우리 시가 노인 결핵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역사·문화적 공간 훼손 우려로 수년째 착공이 미뤄졌던 인천시 중구 신흥동~동구 송현동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 시가 초등학교 5곳 1학년과 중·고등학교 6곳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우리 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송도~서울역 27분 만에 주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공식 추진된다.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우리 시는 조기 착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경기 부천~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08km이다. 총사업비는 5조7,351억원이며, 정거장은 13곳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 최고 180km로 달린다. GTX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 경기도는 30분대에 갈 수 있다. 송도에서 경기 마석까지는 전철로 130분 소요되지만 GTX는 50분이면 가능하다. 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2년 말 착공해 2026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시 철도과 032-440-3893

수돗물 안심, ‘상수도 혁신위원회’ 본격 가동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상수도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영종지역 주민 대표 1인을 추가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소통-제도’, ‘재정-요금’, ‘기술’ 등 3개 분과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수돗물 사고 재발 방지, 선진화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구축,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32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긴급 지원

우리 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만기 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스몸비’ 사고 예방...부평역에 보행신호등 설치

우리 시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부평역 앞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양끝 바닥에 매립되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다. 시는 올해까지 2개소에 대한 시범 운영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및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73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우리 시는 지난 8월 21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4,126억원을 들여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4.45km 구간에 정거장 3곳을 포함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위축됐던 검단신도시의 분양 시장과 주변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철도과 032-440-3918

교통안전 강화 위해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우리 시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면색깔 유도선을 설치한다. 노면색깔 유도선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나들목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시는 이달 초까지 부평구청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 등 9곳을 대상으로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노면색깔 유도선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검증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4

위험시설 신고하면 포상

우리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시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3만105건의 신고 중 우수신고자 74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신고자 최우수상에는 안전장치 없이 방치된 펜션 공사현장을 신고한 시민이 선정돼 50만원을 수여했으며, 다수신고자 부문에선 도로와 생활시설물 파손 등 총 683건을 신고한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 시 사회재난과 032-440-1859

인천항 사일로,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이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FINALIST)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둘레 525m, 높이 48m의 거대한 규모에 86만5,400ℓ의 페인트를 사용한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은 지난해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64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도시 발전협의회 구성

우리 시가 러시아와 북방경제협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지난 7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천광장’ 개장식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해 우호 관계를 더 공고히 다졌다. 지난 8월 16일 허중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올레그 마르크프(Oleg Markov) 부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동양종합무술센터 건립 관련 인천시 참여 요청 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 국제협력과 032-440-3243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가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촌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8월 23일부터 조기 가동했다. 고도정수처리는 수돗물을 만드는 일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유기오염물질 등을 오존 살균과 활성탄 흡착 방식으로 없애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9월 말 가동 예정이었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난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9월 20일까지 공촌정수장 하루 생산량인 30만 톤까지 고도정수처리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032-720-2192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500여 마리 구조

지난해 3월 개관한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개관 500일 동안 야생동물 523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45.9%인 240마리는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구조한 야생동물은 조류가 68종 447마리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7종 71마리, 파충류 4종 5마리 등이다. 구조된 조류 가운데는 저어새와 독수리·새호리기 등 멸종 위기종 23마리, 소쩍새와 솔부엉이·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114마리로 전체 보호종 조류가 137마리나 됐다.

한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032-858-9704

배다리 연결도로 8년 만에 공사 재개

역사문화적 공간 훼손 우려로 수년째 착공이 미뤄졌던 인천시 중구 신흥동~동구 송현동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21일 인천시청에서 제7차 민관협의회를 연 끝에 착공이 미뤄졌던 해당 도로의 3구간(배다리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되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구간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5t 이상 차량의 24시간 통행금지, 3~5t 차량의 일부 시간 통행금지, 진출입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8

어르신 찾아가 결핵 검진

우리 시가 노인 결핵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으로 노인 결핵검진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계양구와 미추홀구, 서구 노인일자리 교육이수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20일부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 교육이수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노인 5,500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 및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이동결핵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42



일부 초·중·고교에 우유 무상급식 지원

우리 시가 초등학교 5곳 1학년과 중·고등학교 6곳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흰 우유와 치즈 등이다.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공급할 예정이며, 12월에 설문조사 형태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양돈 농가에 ‘돼지 유행성 폐렴 백신’ 지원

우리 시는 양돈 농가에 돼지 유행성 폐렴 백신 지원을 추진한다. 돼지 유행성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균(Mycoplasma hyopneumoniae)이 원인체로, 전염력이 강하고 돼지에게 만성 폐렴 증상을 나타내 양돈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돼지 만성 소모성 호흡기 질환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 농가로 사업비 총 1억800만원을 시비 40%, 군·구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1마리당 3,000원 단가로 3만6,000두분 백신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5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의무화

우리 시가 지난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는 맨 앞의 4자리 숫자로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표시된다.

산란일자를 미표시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2



청라국제도시에 ‘스타필드’ 2023년 오픈 전망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스타필드 청라’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3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청라 신세계 판매 시설(스타필드 청라)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심의에서 7가지 사항을 전제로 수정 의결했다. 완충녹지 제거를 통한 사업지 동측 차량 진출입구 추가 개설, 북청라니들목 개선 계획 수립 후 시행, 준공 전·후 3년간 교통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개선안 도출 시 시행 등이다. 스타필드 청라에는 판매, 운동, 문화 및 집회, 숙박 시설 등이 집중되며 단일 부지 기준으로 국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83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

미추홀구 도화동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가 문을 열었다. 지난 8월 7일 행정안전부가 1,051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9,500㎡,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가 개청했다. 정부합동청사에는 인천보훈지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정부기관 공무원 265명이 입주한다. 정부합동청사가 위치한 곳은 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 중간 지점이다.

시 도시재생과 032-440-4462

COUNCIL NEWS

17개 시도 의회, 일본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과 함께 '아베 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아베 내각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이라고 규탄했다. 시도 의회에서도 산업분야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이용범 의장을 시작으로 국회 및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 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정이나 교육·학에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건의 사항 등을 8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icouncil.go.kr)를 통해 접수한다. 제출된 시민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임위원으로 실시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하고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 호우·폭염 대비시설 등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동구 배다리 지하상가 입구) 등 3개소를 찾아 여름철 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배다리 지하상가를 방문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1층 주경기장을 일부 활용한 ‘중대형 무더위 쉼터’와 삼산 제1펌프장을 찾아 태풍이나 폭우, 폭염에 대비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진양에스앤피’를 방문해 특수방화복 납품 지연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방화복이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연구회는 지난 8월 12일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고려인 동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회관, 안산 고려인 지원센터 등 관내·외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어·문화·비자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 노동권, 건강보험 등 고려인들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인하대 다문화교육연구단, 디아스포라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경제위, 남항 화물주차장 대체 부지 점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인천 남항 화물주차장 대체 부지를 현장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와 화물주차장 대체 부지로 검토되는 남항근린공원(에코테마파크)을 둘러봤다. 남항(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은 인천항 배후 단지로 지난 2006년 결정된 국가사업이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안전·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경제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외곽 설치 등 주민 제의안을 반영해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희철 산업경제위 위원장은 “시는 공원시설 해제 불가만 언급하지 말고 화물주차장 대체 부지 가능성을 열어둔 유연한 접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유튜브로 소통한다~



소통하는 의회! 웃음 짓는 시민!
 인천시의회와 함께하는 소소한 인터뷰!
 인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시청 방법]
www.youtube.com/c/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유튜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를 검색하세요!

인성여고, 제222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 참가

인천시의회가 지난 8월 7일 개최한 제222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에 인성여자고등학교 학생 2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의회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체험했다. 또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받은 학생들은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찬반 토론을 하며 안전을 처리했다.

이날 의정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의정교실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www.icouncil.go.kr

인천을 그리다

Drawing & Memories

300만 인천 시민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무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려주세요.

글로벌 도시에서 만나는 글로벌한 즐거움

신도시에서 신나게 쇼핑하고 멋스러운 식사까지 마쳤다면, 다음 코스로 여유로운 산책을 추천합니다. 송도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등 명품 공원이 즐비한 송도국제도시에 또 하나의 시민 휴식처가 문을 열었습니다. 글로벌파크 3·4지구 공원에는 차별화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책 읽기 좋은 공원’ 3지구에는 카페테리아와 북 카페, 야외 공연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활동적인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4지구가 제격입니다. 축구장과 풋살장, 농구장은 기본, 어린이를 위한 조합 놀이대와 내년 여름을 기대하게 하는 대형 물놀이터도 색다른 즐길 거리입니다. 흘린 땀을 개운하게 씻어낼 수 있는 샤워장과 세족장은 덤. 2020년이면 이미 조성된 2지구와 3·4지구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연결로가 완성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글로벌한 공원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8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김정빈 서구 송학로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파크 가는 길
인천도시철도 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방면으로 도보 5분 거리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9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신박한 생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합시다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2019 디자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참가 자격: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참가 주제: 디자인으로 풀어갈 수 있는 주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자유롭게
- 참여 과정: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구체화된 결과물 제출 ⇒ 디자인 콘서트 개최
- 참가 방법: ☎ indew.kr
- 참가 문의: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 010-7210-2368

INDEW 디자인 콘서트

생활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신박한 아이디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공동 창작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

02 당신의 아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장애인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등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합니다.

- 상담 내용: 성폭력·가정 폭력,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데이트 폭력 등 개인 및 집단 상담 진행
- 상담 시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 방법: 방문 상담, 내방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 문의: (사)인천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32-882-8369

03 청소년의 밝은 내일, 함께 고민해요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제4회 청소년 정책 포럼(청소년 진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접수 기간: 8월 13일~10월 11일(60일)
- 대상: 청소년 정책 수요자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공무원, 교사 등)
- 주제: 청소년 진로 정책
- 상금: 총 70만원 상당(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등)
- 신청 방법: ☎ youth04@hanmail.net
- (신청 양식 ☎ inyouthvol.net 공지 사항 참조)
- 결과 발표: 10월 18일
- 문의: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457-8104

04 배움으로 풍성한 가을로 초대합니다

인천여성의광장과 인천여성복지관이 2019년 제4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천여성의광장]

- 교육 내용/신청 기간
- * IT, 어학: 9월 18일 오전 9시
- * 그 외 과목: 9월 19일 오전 9시
- * 공인중개사 대기자: 9월 20일 오전 9시
- 기간: 10월 1일~12월 16일
-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 신청: ☎ wp.incheon.go.kr 선착순 접수 (컴퓨터 기초와 실용반은 방문 접수 가능)
- 문의: 인천여성의광장 ☎ 032-815-7101~3



[인천여성복지관]

-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남성 포함)
- 내용: 기능사(미용, 양재, 도배, 조리, 제과 제빵), 특강 등 78개 과목
- 신청 기간
- * 전문·실용 생활 과정: 9월 25일 오전 9시
- * 문화 아카데미·특강: 9월 26일 오전 9시
- 접수 방법: ☎ women-center.incheon.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인천여성복지관 ☎ 032-440-6540

05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 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신청 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 조건: 만 11세~만 18세 여성 청소년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지원)
- 신청 내용: 12만6,000원(월 1만500원) 지원, 국민 행복 카드로 구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 www.bokjiro.go.kr
-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06 깨끗한 중소기업, 만들어드립니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노후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8월 16일~9월 5일(21일간)
- 지원 대상: 환경오염 방지 시설 증설, 개·보수, 교체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사업장
-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2,000만원(부가가치세 미지원)
- * 개선 비용의 최대 70% 보조, 기업체 30% 이상 자부담
- 신청 방법: ☎ www.igec.re.kr/igec/index.do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첨부, 3부 제출)
- 문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032-835-4374

07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2019 코리아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 공모 주제
- *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위한 정책
- * 고르게 발전하는 포용 사회를 위한 정책
- *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정책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 * 그 외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 공모 기간: 9월 20일 까지
- 공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또는 팀)
- 공모 방법: ☎ koreachallenge.kr
- 문의: 코리아 챌린지 운영 사무국 ☎ 02-6959-2003

08 소상공인 여러분,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제5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 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일시 : 10월 25일(소상공인의 날 주간)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1층 국제회의실
 분야 :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물류업, 공중위생업, 전통시장 상점가, 기타 서비스(고유 브랜드), 가업 승계 대상, 기부 대상, 건설업 등 10개 분야
 수상 : 분야별 각 1명
 신청 기간 : 9월 20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접수, (E) 7189005@hanmail.net
 문의 : 인천소상공인연합회 (T) 032-427-9577

09 캔버스에 그리는 안전한 세상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일반인회생자추모관에서 '제1회 세월호 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 : 9월 15일까지
 공모 대상 :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공모 내용 : 생활 속 안전 수칙, 사회 재난 속 행동 요령
 접수 방법 : 현장 접수(공모 작품과 참가 신청서 필수)
 문의 : 세월호일반인회생자추모관 (T) 032-512-6675~6

10 근대 도시 인천을 공부해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 속 놀이터 <도란도란 박물관 어린이 공방 -건축편>을 운영합니다.

일시 : 9월 28일 오전 10시~낮 12시(6세~초등학교 2학년),
 오후 2시~4시(초등학교 3~6학년)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소강의실
 대상 : 각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H)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 9월 23일 오전 9시~26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T) 032-850-6016

11 최고의 인천 시민을 찾습니다

2019년 제55회 시민의 날을 맞아 영예로운 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시상 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시상 부문 및 인원 : 3개 부문, 9개 분야, 10인 이내
 * 사회공익상 부문(6인) : 새마을 분야, 봉사 분야, 공익 분야, 환경 분야, 국제 교류 분야, 기타 특별 분야
 * 효행상 부문(1인) : 효행상 분야
 * 산업발전상 부문(3인) : 상공업(사용자, 근로자) 및 농수산 발전 분야
 접수 기간 : 8월 14일~9월 3일
 추천 서류 : 추천서, 공적 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 서류, 동의서 각 1통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중 근무 시간 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접수 및 문의 : 시 총무과 (T) 032-440-2503

12 이 가을, 인문학의 향기에 빠져보세요

미추홀학산문화원이 '동양 고전 인문학 산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 9월 3일~12월 10일(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대상 : 인천 시민 30명 이내
 수강료 : 10만원(현장에서 교재비 1만원 별도 납부)
 신청 기간 : 8월 6일~9월 2일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T) 032-866-3993



13 인천 복지의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인천복지재단에서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내용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영역의 복지 최저선·적정선 관련 의견 또는 아이디어
 참여 : (H) www.inwf.kr
 기간 : 12월 31일까지
 문의 : 인천복지재단 (T) 032-721-6982

14 드론 찰칵, 영상 공모전 참여하세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2019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접수 기간 : 8월 12일~11월 8일 오후 6시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 드론, 최고의 순간
 내용 : 자유로운 주제로 만든 가장 자신 있는 드론 영상
 응모 방법 : 웹하드(www.webhard.co.kr) 업로드
 *접수 서류는 (H) kcmf.or.kr/comc/incheon 다운로드
 문의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T) 032-772-7924

15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듭니다

인천여성의광장이 헬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 : 9월 5일까지
 접수 방법 : (H) wp.incheon.go.kr/index.do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만 18세 이상 여성만 신청 가능)
 이용 금액 : 월 2만2,000원
 납부 방법 :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인터넷 신청 시 가능)
 이용 기간 : 9월 2일~26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
 문의 : 인천여성의광장 (T) 032-440-8986

16 박물관에서 듣는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

인천시립박물관이 '2019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 : 극단 친구(벤켈스)
 일시 : 9월 15일 오후 4시~5시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예약 기간 : 9월 11일 오전 9시~14일 오후 6시
 예약 방법 : (H) museum.incheon.go.kr 선착순 접수
 *당일 공연 30분 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 배부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T) 032-440-6736

BOOK INFO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프린세스 바리

지은이 박정운
 347쪽 1만3,000원
 퍼낸 곳 다산책방

박정운 작가는 200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작품 <바다의 벽>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2년 발표한 장편 소설 <프린세스 바리>로 '혼불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책은 한국 무속 신화인 '바리데기'의 바리를 모티프로 한 소설이다. 바리를 차용하고는 있지만 이 소설에서 풀어내는 바리의 서사는 그 이전부터 바리를 차용한 소설들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만은 않다. 작품에서 작가는 이젠 쇠락해 버린 인천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그린다. 수인선을 따라 복작대던 수인곡물시장, 철길 옆 판잣집이 빼곡하던 지금의 송의역 부근,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자유공원과 양키시장, 신포시장 등이 등장한다. 이는 작가의 말에서도 나오듯 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들이다. 이곳의 성쇠를 냉정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입체적인 인물들, 이들을 마주한 바리의 운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생생하게 그려낸다.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E) incheon-librairie@naver.com

한국 철도 120주년, 시발지 인천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인천역’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있었던가. 갓 쓰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의 물결은 철로에서부터 만국공원(현 자유공원)까지 이어진 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저 거대한 원통형의 쇠덩어리가 과연 굴러 갈 수 있을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사람들은 증기기관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철커덕철커덕. 기차가 철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도 잠시, 기차가 요란한 경적과 함께 군중의 바다를 가르며 서울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기차 굴뚝이 뿜어낸 검은 연기가 허공에 잠깐 동안 머물더니 옅은 먹빛으로 파란 가을 하늘에 흩어졌다. 기차가 떠난 자리에 고추잠자리 떼가 날아다녔다.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가 인천역을 출발한다. 종착지는 노량진역. 이때 33.2km의 구간을 경인철도는 1시간 30분 만에 주파한다. 걸어서 하루 12시간 걸리던 거리였다. 인천과 서울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준 경인선이 개통된 뒤 인천의 풍경은 무수한 희로애락이 교차한다. 교통은 편해졌다지만 요금이 비쌌고, 광복하던 해인 1945년까지는 일제 식민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운행됐던 것도 사실이다. 철도 주변 초가집들은 이따금 날벼락을 맞기도 했다. 기차가 내뿜는 연기와 함께 튀어나온 불티가 초가 지붕을 활랑 태우곤 했던 것이다. ‘기차 통학생’이란 문화도 생겨났다. 1915년 경인선의 고객층 가운데 하나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인천 학생들이었다. 당시 인천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평균 400여 명 정도였으나 중등학교 수용 능력은 150명에 불과했고, 이 때문에 200여 명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 신태범 박사는 저서 <인천 한 세기>에서 “남학생은 앞 칸, 여학생은 맨 뒤 칸이란 불문율이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학교별로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고 기차 통학생 시절을 회고한 바 있다.

경인철도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터이기도 했다. 마땅한 장남감이 없던 시절, 아이들은 철로 위에 못을 얹은 뒤 기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못이 튕겨져 나가기 일췌였지만 자리를 잘 잡은 못은 납작한 칼 모양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 ‘못칼’을 ‘맥가이버 칼’처럼 갖고 놀며 철도의 기억을 가슴에 새겼다. 십정동 출생 투포환 금메달리스트로 ‘아시아의 마녀’란 별명을 가진 백옥자는 어린 시절 남자 아이들과 철길을 따라 달리기 시합을 하며 체력이 단련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석탄 실은 열차가 지나갈 때면 그 주변으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여자들은 열차가 흘린 석탄 가루를 주워 모았고, 꼬마들은 아예 기차 위로 올라가 석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뛰어내려 가져가기도 했다. <괘이부리말 아이들> 같은 문학 작품을 탄생시킨 중요한 모티브도 기차길이었다.

경인철도 개통 75년 뒤인 1974년엔 ‘전철’의 시대가 열린다.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 도시화는 대중교통의 확충을 필요로 했고, 그 해 8월 15일 경인전철(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한 것이다. 인천과 서울은 더 가까워졌고 일자리를 찾아, 살 집을 찾아 인천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1980년대 경인전철은 민주 세력의 규합을 도모하는 주요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1980년 5월 15일 동인천역에서 지역운동권 선포식을 가진 수천여 명의 인천지역 대학생들은 태극기를 든 채 우르르 전철에 올랐다. 그렇게 서울역광장에 도착한 인천 학생들은 서울의 수십만 학생들과 합류해 ‘전두환 사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5·15 남대문전투’를 치러냈다. 인천에서 출발, 120년을 달려온 철도는 이제 제2공항철도, GTX-B 노선 예타 통과 등 미래 120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제대한 큰아들의 “동기들이 지니고 있던 가족사진 한 장이 그리도 부러울 수 없었다”라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 후면 닥칠 둘째 아들 입대 전에는 꼭 어엿한 가족사진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그 소박한 꿈을 이루고 난 후 값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촬영 내내 아이같이 웃고 즐거워하던 가족의 모습.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지금처럼만 밝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의 모습 그대로.

박재은(48)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태일스튜디오’에서 찍어주셨습니다.

박태일(42) 사진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천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아름다운 꿈. 그 꿈이 꼭 이뤄지길 <굿모닝인천>이 응원하겠습니다. 위치 연수구 앵고개로 262 문의 032-815-4458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